

부상에 부진까지 줄줄이 이어진 '외인 잔혹사'

'K리그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축구를 비롯해 야구와 배구, 농구 등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외인 농사의 성패가 시즌 전체의 흐름을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올해 K리그1 우승 팀 울산 HD FC는 예사가 아타루와 다리안 보야니치, 구스타브 루비손을 시즌의 절반인 19경기 이상 활용했다. 또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마틴 아담과 켈빈의 계약을 해지한 뒤 야고 카리예로와 기오르기 아라비제를 영입해 무게감을 더했다.

반면 광주FC는 외국인 선수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아시아 쿼터까지 5+1의 외국인 선수 한도를 모두 채웠음에도 여섯 명을 모두 합쳐 87경기(평균 14.5경기)를 소화하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존재감을 발휘했던 외인은 가브리엘 티그랑이다. 가브리엘은 올 시즌 33경기에 출장해 7득점과 5도움을 기록했다. 여섯 명의 외인 중 유일하게 시즌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다.

지난해 33경기에서 7득점과 3도움을 기록하며 광주가 K리그1 3위를 기록, 사상 첫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자시르 아사니는 무성한 이적설에 휩싸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동행을 이어갔다.

아사니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3득점을 터트리는데 그쳤다. 겨울 이적 시장에

<6> 부실한 외인 라인업

가브리엘 유일한 존재감 발휘 아사니는 난조·부상으로 발목 베카·브루노·빅톨 영향력 미미 포포비치는 향수병 임대 아웃

서 뜨거운 감자였던 그는 1차 전지훈련 막바지 체중이 불어난 상태로 팀에 합류했고, 2차 전지훈련에서야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정호 감독은 몸 상태가 완벽히 올라 오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아사니를 러닝부터 단계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아사니는 개막 후에도 알바니아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유럽을 오갔고, 허벅지 부상도 겹쳤다.

결국 전반기에는 6라운드 김천전에서 교체 투입돼 20분을 소화하는데 그쳤고, 이미 정규 라운드가 두 바퀴를 돈 24라운드 대구전에서야 복귀전을 치르며 뒤늦게 전력에 가세했다.

아사니가 복귀 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감독의 믿음 속에 44번에서 7번으로 등번호를 변경한 아사니는 2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15경기 중 12경기에 출전했다. 출전하지 않은 3경기는 모두 국가대표팀 소집 직후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광주FC 알렉스 포포비치가 지난 3월3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1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역전패한 뒤 그라운드에서 주저앉아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광주 유니폼을 입은 뒤 10경기에서 2득점을 터트리며 적응을 마친 베카 미켈타제도 아쉬움을 남겼다. 베카는 올 시즌 잔부상에 시달리며 18경기에서 3득점 1도움으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남기지 못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로 영입한 빅톨과 브루노 올리베이라도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장신 공격수로 기대를 모았던 빅톨은 전반기 9경기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후반기에는 훈련장 사정으로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됐다.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히기 직전에 계약을 맺으며 개막 이후에 합류한 브루노 역

시 19라운드 수원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지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며 네 경기만에 밀려났고, 부상까지 더해지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아시아쿼터로 합류한 알렉스 포포비치는 아예 팀을 떠났다. 이 감독은 포포비치를 주포지션인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로도 기용하며 폭넓은 기회를 줬지만 한국 무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몇 차례 반복된 실수에 자신감을 잃으며 향수병까지 호소한 포포비치는 결국 광주에서 10경기 만을 소화한 채 호주 A리그 시드니 FC로 임대되며 모국 무대로 복귀했다.

외국인 선수 구성 문제는 다음 시즌에도 광주에게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해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까지 활용토록 했는데 자원이 넉넉지 않은 구단으로서 검증된 자원을 품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올 시즌처럼 숨겨진 원석을 발굴해 보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K리그를 통틀어도 새로운 얼굴의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고, 최근 외국인 선수 시장 거품이 이어지고 있어 선뜻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이적설' 이정호 감독, 내년에도 광주FC 지휘한다

연봉협상 마무리...4년 연속 동행 내달 3일 태국 코사무이서 전지훈련

이적설에 휩싸였던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호(사진) 감독이 2025시즌에도 광주 FC에 남아 팀을 지휘한다.

25일 광주FC에 따르면 광주는 이정호 감독과 2025시즌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2021년 12월 광주의 제7대 감독으로 선임돼 부임 첫 시즌인 2022년 25승 11무 4패를 거두며 K리그2 역대 최단 기간 우승을 이끄는 지휘력을 보여주며 2024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K리그1에 돌아온 2023년에는 '강등 1순위'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16승 11무 11패(승점 59)를 거두며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과 함께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ACLE PO)에 진출하며 구단 최초 ACL 진출이라는 기업을 토했다.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와 승점, 창단 최초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굵직한 기록도 다시 썼다.

또 2022년 4월·9월 두 차례의 이달의 감독상과 K리그2 대상 감독상, 2023년 6월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2023년 12월 계약을 3년 더 연장해 2027년까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24시즌 종료 후 전북 현대의 새 사령탑 후보로 떠오르면서 이적설이 제기됐다. 이정호 감독은 고심 끝에 광주



잔류를 선택했고, 전북은 최근 거스 포엣 감독을 선임했다.

이정호 감독은 2025시즌에도 광주와의 동행이 확정됨에 따라 4년 연속으로 팀을 이끌게 됐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을 쏟을 전망이다.

광주 구단은 "이정호 감독 거취 관련 루머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고 다가오는 2025시즌과 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곧바로 2025시즌과 ACLE 16강 진출을 위한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1월3일 태국 코사무이로 전지훈련을 출발하여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광주는 내년 2월11일 산둥 타이산(중국)과의 ACLE 7차전을 시작으로 2025시즌의 포문을 연다. 최동환 기자

KIA 김도영, 프리미어12 활약 선수 3위

5경기 타율 0.412 3홈런 10타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21·사진)이 지난 11월 끝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톱3'에 이름을 올렸다.

WBSC는 지난 24일(한국시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024 프리미어12를 중계한 알렉스 코언 WBSC 해설가가 선정한 프리미어12 선수 톱 10'을 소개했다.

김도영이 3위를 차지하며 올해 프리미어12에서 보인 실력을 인정받았다.

1위는 알론소 가이탄(멕시코), 2위는



1.486을 기록했다.

쇼는 9경기 타율 0.412(34타수 14안타) 2홈런 14타점, OPS 1.206으로 활약했다.

김도영은 한국이 슈퍼라운드(4강)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서도 5경기 타율 0.412(17타수 7안타) 3홈런 10타점에 OPS 1.503으로 고군분투했다.

올해 7월 열린 MLB 신인 드래프트에

맷 쇼(미국)였다.

가이탄은 올해 프리미어12 5경기에서 타율 0.263(19타수 5안타)에 홈런없이 1타점, OPS 0.596에 그쳤다.

김도영은 지난 21일 WBSC가 SNS에 공개한 마이클 클레어 MLB닷컴 기자의 프리미어12 '좋아하는 선수' 순위에서도 7위에 올랐다.

김도영은 올해 KBO리그에서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 등을 기록하며 역대 최연소 30홈런-30도루 달성과 팀의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또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3루수 골든글러브를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최동환 기자

전남드래곤즈, '브라질리언 몬스터' 호난 영입

발디비아와의 호흡 기대 "10골 이상 득점 자신"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브라질리언 몬스터' 호난(사진)을 영입, 공격력을 보강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4일 브라질과 포르투갈, K리그, 중국 갑급리그까지 다양한 리그를 경험한 호난(RONAN David Jeronimo)을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라질 국적의 공격수 호난은 195cm·88kg의 강력한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능력과 득점력을 고루 갖춘 타겟팅 스트라이커다. 또 성실한 전방 압박과 위치 선정,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



는다.

2014년 그레미우(브라질 세리에A)에서 데뷔한 호난은 이듬해 포르투갈 리그의 AD산 호렌세로 이적, 포르투갈 무대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리오 아베 FC(포르투갈 1부)에 입단한 호난은 바르셀SC(포르투갈 2부), CD 톤델라(포르투갈 1부) 등을 거쳤고, 2021~2022시즌 리오 아베에서 팀의 2부리그 우승과 승격을 이끌었다.

유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23시즌 서울 이랜드 FC로 이적한 호난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30경기 7득점 1도움을

기록해 K리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2024시즌을 앞두고 서울 이랜드에서 중국 갑급리그의 연변 룡딩으로 이적한 호난은 27경기 12득점 2도움으로 팀의 최전방을 이끌었다.

2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호난은 두자릿수 득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호난은 "K리그2 MVP 출신의 발디비아와 함께 뛰는 것이 기대된다. 그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10골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구단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전남드래곤즈는 호난의 영입으로 김현석 감독의 공격적인 팀 컬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석 감독 선임 후 영입 1호로 호난을 영입한 전남은 내년 1월2일 선수단을 소집해 동계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